

## ‘탱크’ 최경주 고향 사랑 ‘홀인원’

### 완도에서 모교 방문 후배들 상대 개인 지도

‘탱크’ 최경주가 1박2일 일정으로 고향 완도를 다녀갔다.

신한동해골프 오픈과 희망나눔 스킨스게임에 참가했던 최경주가 4일 밤 완도를 찾았을 때는 모교인 완도 화흥초등학교를 찾아 후배지도에도 나섰다.

최경주는 한국 골프의 희망인 골프부 후배들을 상대로 1시간여동안 개인지도를 하

드에 올랐던 최경주는 대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자 산소 참배를 위해 완도행을 선택했다.

5일 오전 할머니의 묘소를 다녀간 최경주는 모교인 완도 화흥초를 찾아 후배지도에도 나섰다.

최경주는 한국 골프의 희망인 골프부 후배들을 상대로 1시간여동안 개인지도를 하

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화흥초는 지난 2006년 특기적성교육으로 방과후 골프교실을 시작한 뒤 2007년 정식으로 골프부를 창단했다.

한편 최경주는 4일 애월 카브레리(아르헨티나),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 김경배(24·신한금융그룹) 등과 ‘희망나눔 스킨스 게임’에서 획득한 상금 1억5000만원을 전액 사회단체에 기탁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탱크 최경주가 5일 모교인 완도 화흥초등학교를 찾아 골프 꿈나무들에게 개인지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존’ 신지애 국내무대 2연승 도전

### 장성에서 8일 하이마트배 출격 고향 팬들에 샷 선사

‘골프지존’ 신지애가 고향팬들 앞에서 국내대회 2연승에 도전한다.

역대 최연소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명예의 전당 가입 자격을 얻은 신지애(22·미래에셋)가 8일 장성 푸른솔 골프장(파72·6565야드)에서 개막하는 제2회 하이마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에 출전한다.

6일 연습라운드와 7일 프로암대회를 시작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가 이어지는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 출전한 국내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신지애를 비롯해 서희경, 유소연, 이보미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의 맞

대결로 관심을 모이고 있다.

고향을 찾는 신지애는 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이 걸린 이번대회에서 국내 상금 랭킹 1위(4억1332만6250원) 안신애를 포함해 올해 치러진 16차례 KLPGA 투어 우승자 15명과 치열한 샷대결을 벌이게 된다.

한편 신지애는 지난달 베트라이프-한국 경제 제32회 KL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KLPGA 통산 20승 달성과 평예의 전당 가입 조건까지 충족시키는 겹경사를 맞았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내일 동반 출격 우승 경쟁

#### 김대현·배상문 상금왕 다툼

적인 컨디션은 아니지만 고국의 내셔널 타이틀대회에서 우승컵을 꼭 안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대현(22·하이트)과 배상문(24·키움증권)은 상금왕 경쟁을 예고했다.

김대현은 엄청난 장타에 쇼트게임 실력까지 겸비하며 이번 시즌 강력한 상금왕으로 꼽혔지만 후반기에 들어 하향곡선을 그렸다.

메리츠솔모로오픈과 신한동해오픈에서

첫 탈락한 김대현은 아직 상금랭킹 1위(3억

7천900만원)를 지키고 있지만 3년 연속 상

금왕을 노리는 배상문(2위·2억9천200만원)

이 바짝 추격해 왔다.

2년 전 한국오픈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멋진 샷을 냈었던 앤서니 김은 “아직도 정상

적인 컨디션은 아니지만 고국의 내셔널 타이틀대회에서 우승컵을 꼭 안고 싶다”며 각

오를 밝혔다.

김대현은 엄청난 장타에 쇼트게임 실력까

지 겸비하며 이번 시즌 강력한 상금왕으로

꼽혔지만 후반기에 들어 하향곡선을 그렸

다. 메리츠솔모로오픈과 신한동해오픈에서

첫 탈락한 김대현은 아직 상금랭킹 1위(3억

7천900만원)를 지키고 있지만 3년 연속 상

금왕을 노리는 배상문(2위·2억9천200만원)

이 바짝 추격해 왔다.

/연합뉴스

## 양용은·앤서니 김 한국오픈 부활 무대로

양용은(38)과 재미교포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이 코오롱 제53회 한국오픈 골프 대회에서 내년 시즌 도약을 준비한다.

7일부터 나흘간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파71·7천213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오픈은 총 상금 10억원에 우승상금 3억원을 걸고 펼쳐지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양용은과 앤서니 김으로서는 부활의 샷을 보여주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지난해 PGA 투어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최고의 한해를 보냈던 양용은은 지난 2월 피닉스오픈에서 3위, 4월

마스터스에서 공동 8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톱10안에 들지 못했다.

양용은은 “이번 대회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해 왔다. 한국오픈은 내 골프 인생에 전환점을 마련해준 대회였기에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PGA 투어 영광의 선두 주자였던 앤서니 김도 양용은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지난 4월 PGA 투어 쉘하우스오픈에서 우승했던 앤서니 김은 시즌 도중 손가락 수술을 받은 뒤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2년 전 한국오픈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멋진 샷을 냈었던 앤서니 김은 “아직도 정상

적인 컨디션은 아니지만 고국의 내셔널 타이

틀대회에서 우승컵을 꼭 안고 싶다”며 각

오를 밝혔다.

김대현은 엄청난 장타에 쇼트게임 실력까

지 겸비하며 이번 시즌 강력한 상금왕으로

꼽혔지만 후반기에 들어 하향곡선을 그렸

다. 메리츠솔모로오픈과 신한동해오픈에서

첫 탈락한 김대현은 아직 상금랭킹 1위(3억

7천900만원)를 지키고 있지만 3년 연속 상

금왕을 노리는 배상문(2위·2억9천200만원)

이 바짝 추격해 왔다.

/연합뉴스

## 라이더컵 명승부, 유럽연합 웃다

### 미국팀 우즈 선전했지만…

### 종합전적 14.5대13.5로 패

유럽연합팀이 2년 전 미국팀에 넘겨줬던 라이더컵을 되찾아왔다.

유럽팀은 4일(이하 한국시간) 밤 웨일스 뉴포트의 셀틱 매너 골프장(파71.7천 378야드)에서 열린 미국과 골프대항전 라이더컵 마지막날 싱글 매치플레이 12경기에서 미국의 대 반격에 4승2무6패로 밀렸다. 하지만 유럽은 전날 포섬, 포블 경기까지 승점 3을 앞섰던 데에 종합전적 14.5-13.5로 힘겹게 미국의 추격을 따돌렸다.

2년마다 열리는 라이더컵에서 2002년과 2004년, 2006년까지 3연승을 달렸던 유럽은 2008년 미국에 패했지만 2년만에 다시 우승컵을 가져왔다.

유럽은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하며 리드를 잡았지만 싱글 매치플레이에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늘 앞섰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었다. 우리대로 유럽은 경기 시작과 함께 미국의 대공세에 시달렸다. 네 번째 주자 마틴 카이머(독일)가 더스틴 존슨



유럽연합팀의 폴 맥기리, 파드리그 해링턴, 그雷엄 맥도웰, 로리 맥길로이, 대린 클라크(사진 왼쪽에서부터)가 4일(한국시간) 밤 웨일스에서 끝난 미국과의 골프대항전 라이더컵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국)에게 6홀차 압파를 당하더니 리웨스트우드(잉글랜드)마저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에 2홀차로 패했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스튜어트 싱크(미국)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0.5점을 보탰고 루크 도널드(잉글랜드)와 이언 폴더(잉글랜드) 등이 승리를 따내면서 13-10으로 앞서 나가 고비를 넘기는 듯 했다.

하지만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에 4홀차

승리를 거두며 추격의 신호탄을 쏘이더니 필 미켈슨(미국)도 페테르 한손(스웨덴)을 4홀차로 꺾고 1점차로 따라붙었다.

하지만 유럽은 동점에서 마지막 주자 그雷임 맥도웰(북아일랜드)이 헌터 메이헌(미국)을 3홀차로 물리치며 승점 1을 추가, 미국의 추격에 쇄기를 봤다.

/연합뉴스



## 2010 Green 광주&전남 자전거축제

2010년 10월 31일(일) 오전 7시 30분 ~ 13시

광주광역시청(출발) → 광주공항삼거리 → 평동공단 → 나주동신대학교 → 삼거교차로 → 호남대학교(도착)

<http://bike.kjmedia.co.kr>

종목  
로드레이스  
(경쟁 46km)

주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주관 |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후원 |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나주경찰서

문의 | 062-220-0541

